

■ 발표자료 요약

1.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조사 결과

천규승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

-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 결과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37.6점에 불과,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.
 - 남학생은 지식, 여학생은 기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력을 보였으며, 태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.
 - 경제 과목 수강은 금융이해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실업계 학생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음.
- 금융교육에 관한 관심과 선호는 매우 현실적인 요구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고등학생들은 수입과 지출관리,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, 생애를 고려한 재무관리 등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, 위험관리나 보험, 금융상품의 특징, 금융정보 탐색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 - 저축과 투자에는 관심이 높았으나 이해력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, 특히 위험관리와 부채의 관심이 가장 낮고, 이해력 역시 낮은 수준
 -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금융과 의사결정, 여학생은 신용과 부채관리 부문에 대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음.
- 이 같은 분석 결과, 학교 금융교육의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임.
 - 첫째, 학교와 교육당국의 입체적·다면적 대응

-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금융생활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내용을 재배치하고, 선택적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도 조정해야 할 것임.
- 특히 여학생의 지식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보완하고, 실업계 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.
- 무엇보다 이는 학교 밖에서의 교육적 지원이 아닌,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한 학교에서의 면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함.
- 둘째, 금융교육 지원기관에 의한 학교, 교육당국의 기능적 한계 보완
 - 대학 입시 내신 성적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관심 및 집중도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교육방식과 학습자료 개발이 요구됨.
- 설문조사 방식의 금융이해력 테스트 정례화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온라인 무료 테스트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교육 내실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

발표11. ‘초·중·고 금융교육 표준안’의 구성과 내용체계

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

- 고령화, 신용사회, 저금리, 부에 대한 열망 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일생동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달성키 위해서는 금융상 합리적인 판단력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함.
- 금융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금융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계적 경쟁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.
 - 국민들이 금융정보를 제대로 이해해 위험관리와 부의 창출 및 일생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계의 건전성 확보와 국가 경제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작용
- 현재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소비절약과 저축하기, 용돈관리와 재무설계, 화폐와 금융정책 등 관련 교육을 해 왔으나, 내용과 정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있음.
- 설문조사 결과, 조사대상의 93.5%가 금융이 중요하고 75.5%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8.5%, 금융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4.1%로 나타남.
 -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금융교육 여건이 금융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증거
 - 금융교육은 ‘바람직한 금융생활 태도’(35.9%), ‘금융 실천 능력’(31.7%)에 대한 요구가 ‘금융이론과 지식’(18.8%)이나 ‘금융기관 역할이나 금융 상품 정보’(11.9%)에 대한 요구보다 높게 나타남.

- 정부는 학교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해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교수·학습 자료 보급 및 교사 연수 등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

발표111.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도에 관한 조사 연구

오영수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

- 초등학생 경제이해도 조사결과, 가정환경은 경제에 대한 태도와 경제이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향후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,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기회의 확대가 요구됨.
 -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외부 경제교육기관들의 보다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함.
-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환경은 경제에 대한 태도와 경제이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초등학교와는 달리 경제 교육과 관련된 학교적 특성은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-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경제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설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가 요망됨.
- 고등학교는 계열에 따라 경제이해도 수준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, 일반계 학교에서는 경제 선택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.
 -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초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태도와 경제이해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, 그 영향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.
 -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은 이미 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더 적은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경제교육 기회와 더욱 멀어지게 되며, 결과적으로 경제이해도의 격차가 확대됨.
 -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계, 전문계 학생 등 경제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기회 확대가 요망됨.